

## 산림경제(山林經濟)

김 영 진  
<농림부 축산국장·농박>

### 산림경제에 대하여

지난번에 소개한 색경(穡經)에 수록된 가금관계 기록은 비교적 짧은 내용의 것이었다. 이번호에는 색경보다 후기(약 20~30년後)에 나온 산림경제를 소개코저 하는바 산림경제의 원저자는 조선도서해제(朝鮮圖書解題 328p)에 기록한 것을 보면 박세당(朴世黨)이 저술하고 서유거(徐有渠)가 증보(增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조선 후기농업사연구(朝鮮後期農業史研究 金容燮著)에는 산림경제의 원저자는 유암(流巖) 홍만선(洪萬選)이라 하고 후일 증보(增補)한 분은 문성 유중림(文城 柳重臨)이라 하였다. 필자의 여러가지 고증으로도 원저자는 홍만선이 틀림없으며 저작년도는 명확하지 않으나 그가 세상을 뜬 것이 1715년이므로 산림경제의 저술은 적어도 1715년 이전일 것으로 추측된다.

홍만선은 1682년인 이조 숙종(肅宗) 8년에 관계에 나아간 이래 30년간 주로 지방관(권농관)으로 돌아다니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문헌을 참고하여 실학적(實學的) 안목으로 저술한 책이 바로 산림경제이다.

산림경제는 저술당시에 인본(印本)으로 출판되지 못하였으므로 많은 필사본(筆寫本 木으로 옮겨 쓴 책)이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많은 이본(異本 내용이 약간씩 다른 책)이 있다. 필자가 Text로 사용한 책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증보한 필사본(筆寫本)인바 산림경제는 후일 부분적으로 수정할 곳도 있고 첨가할 부분이 있어 문성 유중림(文城 柳重臨)이 1766년인 영조(英祖) 42년에 증보(增補)하여 증보 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를 완성하게 되었다.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는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여 백과사전격으로 되어 있으니 내용의 항목만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복거(卜居) 치농(治農) 종수(種樹) 양화(養花) 양잠(養蠶) 목양(牧養) 치포(治圃) 섭생(攝生) 종덕(種德) 치선(治膳) 구항(救荒) 벽온(辟瘟) 벽충(辟蟲) 가정(家政) 구사(求嗣) 양아(養兒) 구급(救急) 사시찬요(四時纂要) 전가점후선택(田家占候選擇) 잡방(雜方) 격물(格物) 청제(淸齋) 위치(位置) 기경(棋經) 필결(筆訣) 산야약(山野藥) 동국산수(東國山水) 등 27개항에 걸쳐 있다.

이 중 복거 구사 가정 양아 등의 항목은 농업과 직접관계가 없는 것도 있으나 모두가 농촌생활에 불가결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중 목양(牧養)편은 총 106페이지로 되어 있으며 서두에 서론적인 내용이 있고 다음으로 소말을 위시하여 각종가축에 대한 품종선택, 사육, 감별법, 치료법, 비육법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목양편에는 가축이외에 양어(養魚) 양봉(養蜂) 등에 대한 사육법도 항(項)을 달리하여 기록되어 있는바 여기에서는 가금과 이에 유사한 소동물에 대해서만 연재로 소개코저 한다. 산림경제를 총평하면 1700년대까지의 우리 농업기술을 총정리한 것으로 김용섭(金容燮)의 논평을 빌면 「산림경제는 전통적인 우리농법(農法)의 계승발전과 우리 농학(農學)의 체계화를 기도한 저술」이라고하고 있다.

물론 고도로 발달된 최신 과학적 견지에서 본다면 다소 소홀한 점이 없지 않을 것이며 또 곳에 따라서는 미신적 느낌마저 느껴지는 대목이 있으나 본서의 원저가 최소한 270년 이전에 저술된 것을 생각한 때 우리의 전통적 기술에 대

한 경의와 존경에는 변함이 없으리라고 믿는다.

## 山林經濟

### 牧 養

牛耕田 馬載物 鷄司農 犬防盜 至於羊豬魚鴨之屬 可以充庖 深解牧養之道則 可賴而資生矣 時或馴擾鶴鹿瀾鵠 作伴遺閑亦可矣

#### [역문] 목양(가축을 기름)

소는 밭을 갈고 말은 짐을 나르며 닭은 새벽의 시간을 알리고 개는 도둑을 막는다. 양이나 돼지 물고기 오리 등 속에 이르러서는 푸주간을 채우니 가축 기르는 법을 깊이 이해하면 가히 자본생산에 힘입는바가 될 것이다. 때때로 학이나 사슴 뜰부기 봉황새 등을 길들여 짝지어 한가롭게 할 수 있다면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 牧 養 論

既定人居 必有常產 畜牧之事 亦不可少也 故每七月間 六畜房圈 預先整頓 以避風雪 不使冬損 夏亦留心保護 勿致傷熱可也

○陶朱公云 子欲富 富畜五疋 牛馬豬羊驢是也 必廣占水草便宜之也 誠心畜牧則 所得豈其少哉

### 목 양 론

사람이 거주할 곳을 정하면 항상 생산이 있어야 하니 가축을 기르는 사업은 또한 가히 작은 일이 아니로다. 그러므로 매양 칠월중에 여섯가지 가축의 축사를 미리 정돈하여 바람과 눈을 피하게 함으로서 겨울에도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여름에는 조심하여 보호함으로서 더위에 상하지 않도록 함이 옳은 일이다.

○ 도주공(陶朱公)이 이르기를 사람이 부(富)하고자하면 다섯가지 가축의 새끼 를 기름이 마

※ 註: 이상에 기록한 것은 산림경제 목양편의 첫머리에 기록된 것으로 가축사양에 대한 서론적인 구절이다. 이 구절 다음으로 소, 말, 노새, 나귀, 돼지, 염소, 닭, 오리,

거위, 개, 고양이, 물고기, 양봉, 학, 솔개, 노루, 꿩, 울빼미, 뜰부기, 비호리, 봉황, 원앙, 메추리 등에 대한 기록이 있는바 여기에서는 가금과 이에 가까운 소동물에 관해서만 소개코져 한다.

멍하니 소, 말, 돼지, 양, 노새 등이 이것들이다. 반드시 넓은 곳을 차지하되 물과 풀이 많아 편리한 땅이라야하니 성심껏 가축을 기르려 그 얻는바가 어찌 적다 할 것인가?

### 鷄

○ 治鷄鵠鴨 栖吉方子午卯西方 名四極 甲丙庚壬方爲中 皇此八方 治之主物大旺

○ 出雞忌酉日 又臘月殺雞不祥 又忌酉日殺鷄

○ 取雞種法

桑落時(或之霜降時) 生者良 春夏生者不佳形小毛茂脚細短者 善守窠育雛

### 닭

○ 닭과 거위 및 집오리를 기르는데 있어서 계사(雞舍)를 지을 길(吉)한 방향은 자(子) 오(午) 묘(卯) 유(酉) 방인바 이를 이룸하여 네가지 극(極)이라 하며 갑(甲) 병(丙) 경(庚) 임(壬)방은 중(中)이 되니 이 팔방에 주물(主物) 가축을 뜻함)을 다스리면(사육하면) 크게 왕성하게 될 것이다.

○ 닭을 내놓되 유일(酉日)을 꺼리며 또 셋달에 닭을 잡으면(죽이면) 상스럽지 못하다. 또한 유일(酉日)에 닭을 잡는(죽이는) 것도 꺼려야(피하여야) 한다.

○ 닭의 종자를 가리는 법: 뽕나무 잎이 떨어질 때(혹은 서리가 내릴 때)생긴 것은 우량하고 봄 여름에 생긴 것은 아름다운 형태를 하지 않는다.

털이 작고 무성하며 다리는 가늘고 짧은 놈이 동우리를 잘 지키고 병아리를 잘 기르는 어미 닭이 된다.

※ 註: 鷄와 雞는 같은 글자임.

○ 作雞栖法: 古方門上置雞栖 令人家吉 又云以李樹作架 坐雞則盛 然雞栖必擾地爲籠 籠內着棧 雖鳴苑不朗而安穩 易肥又 免狐狸之患

○ 化雞籠小而 雞兒多則 氣熏令雞目盲矣 籠內積屎 必時時除去 免致蒸成雞病 雞栖要冬暖夏涼

○ 계사를 짓는법 : 옛날의 방법은 문위에 닭장을 놓아두면 인가(人家)에 길함이 있다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오얏나무로 닭이 앉을 헛대(시렁)를 만들고 그 위에 닭이 앉으면 매우 번성한다 하였다. 그러나 닭이 깃들 곳은 반드시 닭장이어야 하니 닭장안에 사다리를 놓아 두면 비록 닭이 우는 소리는 명랑하지 않으나 편안하여 살이 잘 오르고 또한 여우나 너구리의 피해를 면할 수 있는 것이다.

○ 무릇 닭장은 작는데 병아리가 많은즉 공기가 혼탁하여 닭의 눈이 어두어진다. 닭장안에 쌓이는 똥, 오줌은 반드시 때때로 제거함으로써 이들이 떠서 혼증되어 닭이 병들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니 닭장은 요천데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서늘하여야 한다.

○ 相雞法 : 白雄雞辟邪 然養三年則 反爲鬼使即去之.

○ 雞黑身白頭者鳥雞 白足者病 六指者食並殺人 (雞有皮膚半白半黑 自喙足黑白 名曰陰陽雞 患瘡者懷中抱之 立止吹毛詳者).

○ 赤胸白鳥雞治風 凡鳥雞眼不黑 非眞鳥雞.

○ 變雞毛色法 用罌粟子二兩 硫黃二錢共爲末 以米湯拌藥與雞食之 食盡其雞如拳其毛 五色可愛

○ 雞健鬪則 不失其雌於他雄矣 霜降時生者 性惡必善鬪 雄黃末搜飼之 可去其胃虫 此藥性熱 又可使其力健 又芳草鳥頭末 塗雞冠上 連鬪連贏 (雞方奮鬪時 收按其胸則 氣塞便死)

○ 老甚雞勿食

○ 닭의 상(相)을 보는 법 : 백색의 수탉은 간사하고 간사함으로 3년간을 기른즉 도리어 귀신이 되나니 그러므로 이는 곧 버릴 것이다.

○ 닭의 몸은 검은나 머리가 백색의 것은 오계(烏雞)라고 한다. 발이 백색인 것은 병든 것이며 발가락이 여섯개나 달린 것은 서로 조이거나 아울러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다(닭의 피부가 반은 백색이고 반은 흑색이어서 주둥이로 부터 발에 이르기까지 흑백이 얼룩지면 이런 닭을 일컬어 음양계라고 이른다. 학질

이 걸려 근심되는 닭은 품속에 얹어 세워두고 털을 붙어서 꼴을 자상해 볼 것이다.)

○ 붉되 가슴부위가 백색의 오계(烏雞)는 풍(風)을 치료하는데 쓰이는바 무릇 오계는 눈이 검지 않으면 참된 오계가 아니다.

○ 닭의 깃털을 변색시키는 법은 양귀비(아편을 만드는 원료)의 씨 두량(二兩)에 유향두근종을 섞어 가루를 만든 다음 쌀죽에 섞어서 잘저어 닭에 먹인다. 다 먹고난 닭은 군데군데 무리져 오색의 빛같이 영롱하게 나타나 가히 사랑스러운 일이다.

○ 닭이 건강하고 잘 싸울시 암탉을 다른 수탉에게 뺏기지 않는 법이다. 서리가 내릴때 낱은(발생한) 닭은 성질이 사나워 반드시 잘 싸우는 법이다. 솟놈에게 유향가루를 먹이면 위속에 있는 벌레를 없애주며 이 약은 성질이 더운 것으로 또한 닭의 힘이 세어지고 건강하게 된다.

또 한가지 방법에 초오(草烏) 뿌리를 가루로 만들어 닭의 벼슬위에 발라주면 계속 싸워도 연이어 신묘하게 싸운다. (닭이 바야흐로 싸울때에 붙잡아 그 가슴을 어루만지면 호흡이 막히어 곧 죽어 버린다.)

○ 심히 늙은 닭은 먹지 말아야 한다.

○ 雞初到家令不走法 ; 以淨溫水 洗其脚足 自然不遠走(暑月籠來 雞方其熱喘時 飲以冷水便死)

○ 닭을 처음 다른 집에 옮겼을 때 달아나지 않게 하는 법 : 깨끗하고 따뜻한 물로 다리와 발을 씻어준즉 자연 멀리 달아나지 않는다(무더운 날씨에 닭장에 넣어두면 닭은 바야흐로 더워서 헐떡거리나 이때에 차거운 물을 마시게 되면 문득 죽어버리게 된다.

○ 肥雞法 : 以油和麵捏成指尖大塊 日與數十枚食之 或以硬飯同土硫黃研細 每次用半錢許 同飯拌勻餵之 數日即肥

○ 餵小麥飯則易大

○ 用棧鷓法則易肥(法見下)

○ 雞雌雄皆斬去六翻 無令得飛出外 蒸小麥飼之 三七日 便肥大矣 拔尾則體便肥

# 협성가축약품공사

가축예방약 치료제 사료첨가제

소독약 기타 일체 총판

서울 청량리역전 오스카극장 앞

가금진료전문

협성가축병원

서울 청량리역전 오스카극장 앞

(92) 7779  
(96) 9231

(92) 7779 (96) 9231

○ 닭을 살찌우는 법 : 기름을 섞은 밀가루 반죽을 손가락 크기 만큼 큰 덩이로 만들어 매일 열개씩 먹인다. 혹은 굳은 밥에 흙과 유황분말을 섞어 매양 반돈중가량 먹이되 밥과 잘 혼합시켜 먹이면 수일만에 곧 살이 오르게 된다.

○ 밀밥을 지어 먹인즉 살이 오른다.  
○ 오리를 기름 때 쓰는 사다리(헛대)를 사용한 즉 용이하게 살이 오른다.(방법은 다음 항을 보라.)

○ 닭의 암수를 막론하고 깃을 여섯개 잘라버리면 날려서 밖에 나가지 못 한다. 밀을 삶아서 먹인즉 이십일만에 살찌게 된다.

○ 令雞下卵 不肯菹法 : 母雞下卵時 逐日食內夾以麻子餵之則 永不菹只下卵矣

○ 닭이 알을 낳되 알품기(부화)를 즐기지 않게 하는법 : 어미 닭이 알을 낳을 때 날마다 삶찌(麻子)를 먹이에 섞어 먹인즉 영구히 알을 품지 않고 알만 계속해서 낳게 된다.

○ 護雞雛法 : 新下雛以爪甲摘去 嘴頭甲飼以碎米或細米之類 月餘無令出窠恐鳥鳶取去

○ 初生時飼以燥飯 無甚妨 若飼濕飯則 臍膿而死 若燒柳柴則 小者死大者目盲(菹雞窠下懸斧 子皆成雄雞)

○ 병아리를 보호하는 법 : 햇병아리가 나오면 받침이나 입부리를 정리하여 준다. 입부리는 싸레기를 쪼아 먹이거나 가는 쌀 등 속을 먹인다. 한달이 지날때까지는 술개나 까마귀가 채갈 염려가 있으니 동우리에서 내 놓지 말 것이다.

○ 처음 병아리가 나왔을 때에는 마른 사료를 먹여도 심히 해로운바 없으나 만약 습기가 많은 사료를 먹이면 배꼽이 곱아서 죽게 된다. 만약 버드나무를 태운주 그로 인하여 어린 닭은 죽어 버리고 클 닭은 눈이 멀게 된다. (닭이 동우리에서 알을 품을 때에 도끼를 동우리 밑에 달아매 놓으면 알에서 부화된 닭은 모두 수탉이 된다.)

— 다음 호에 계속 —

